

2010. 11. 23

Motorization 분석에 기초한 중국 자동차산업의 향방

김경찬, 정철호, 조대현, 최부식

Executive Summary

Motorization 분석에 기초한 중국 자동차산업의 향방

- 중국은 2009년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/판매국으로 부상했고, 향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
 - 중국 자동차 생산은 2000년 이후 연평균 24% 고성장을 해 왔고,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2009년에도 44% 증가한 1,700만 대를 생산해 세계 최대 실적 기록
- 중국 자동차산업은 ‘경제 성장→정부의 육성 정책→자동차사의 역량 강화’로 이어지는 성장의 선순환 체계 확립
 - 2020년까지 연평균 7% 이상 경제 성장을 하면서 자동차 수요를 견인하고, 도로 등 인프라도 정책적 노력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
 - 정부의 적극적인 자동차산업 육성 정책도 양적·질적 성장의 토대가 될 전망
 - 동시에 중국 자동차사들은 최근 해외 자동차사 인수합병을 감행함으로써 기술력 및 인지도를 조기에 강화
- 중국 자동차시장은 이미 **Motorization**에 진입하여, 향후 본격적인 고성장으로 이행할 전망
 - 일본, 한국, 중국은 20년의 시차를 두고 **Motorization**에 진입했는데, ‘천명당판매대수/1인당GDP’을 분석하면 2020년까지 자동차 내수 판매는 연평균 14%씩 증가하여 4천만 대를 돌파할 예정
 - 2020년 중국 자동차 생산 대수는 총 4,280만 대가 될 것으로 전망(내수 4,070만 대, 수출 210만 대)
- 중국 자동차산업의 급성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내 완성차 업계, 자동차 부품업계, 소재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
 - 완성차업계는 글로벌 자동차사의 현지 생산능력 확대 가속화에 대응하여 현지 생산능력 확충 계획 구체화
 - 부품업계는 공급 확대를 위한 현지 업체와의 협력 등 적극 고려
 - 소재업계는 자동차사 및 부품사와의 동반 진출 모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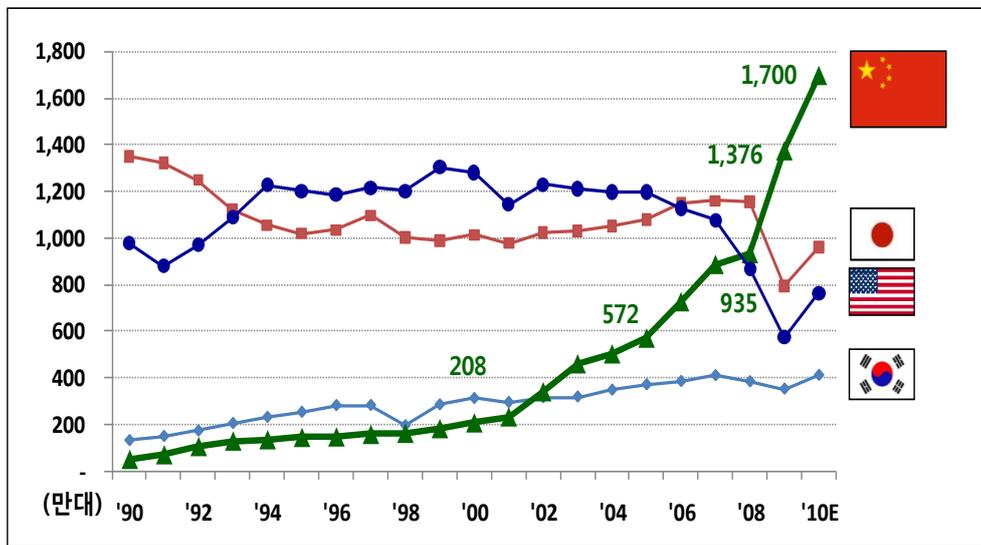
Contents
목 차

1. 중국 자동차산업의 성장 추이	1
2. 중국 자동차산업의 선순환 체계	3
3. 중국 Motorization 분석 및 전망	4
4. 시사점	8

1. 중국 자동차산업의 성장 추이

- 중국이 2009년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/판매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자동차 및 철강업계의 관심이 집중
 - 2000년 이후 연평균 24%의 고성장을 거듭했고,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44%라는 놀라운 성장률 시현
 - (2000년) 208만 → (2008년) 935만 → (2010년) 1,700만 대 생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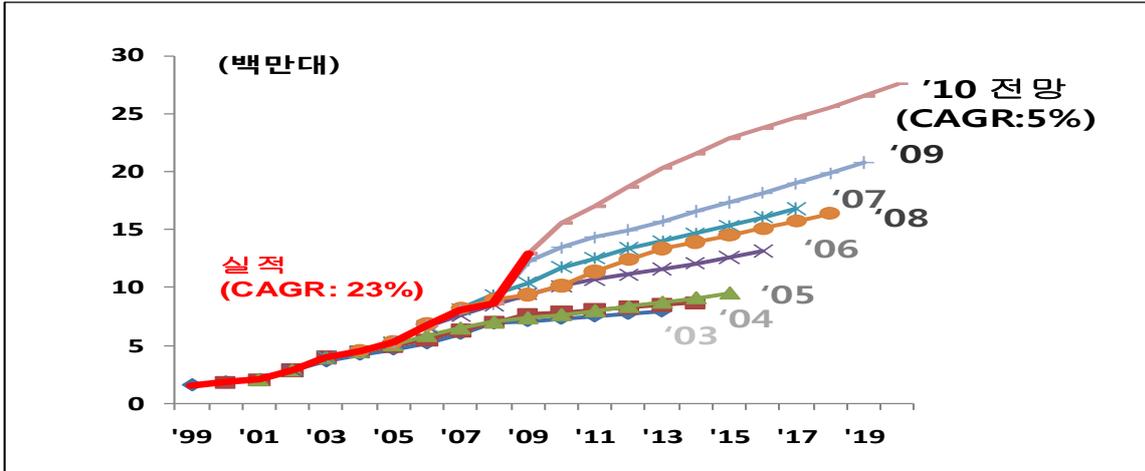
<주요국 자동차 생산 추이>



자료: 국가별 자동차공업협회(2010)

- 중국의 2020년 자동차 생산대수 예상치는 5,100만 대(도이치뱅크), 3,700만 대(크레딧스위스), 3,000만 대(글로벌인사이트) 등이나, 가장 보수적인 전망치를 발표하는 글로벌인사이트조차 매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중

<글로벌인사이트의 중국 자동차 생산 전망>



주: 전체 자동차 기준
 자료: Global Insight 각호

- 중국의 현지 자동차업계 관계자 및 자동차 전문가들은 2020년 자동차 생산량을 4천만 대, 판매량을 5천만 대로 예상

<중국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>



“2020년 4천만 대의 국내 생산 판매가 이루어질 것이며, 수출 1천만 대를 더할 경우 5천만 대에 달할 것”

- 창안자동차그룹 동사장 쉬리우핑(徐留平) 2009.09

“자동차 생산량은 연 평균 10.3% 증가하여 2020년 규모가 4천만 대 이상에 달할 것”

- 중국승용차연합회 비서장 라오달(饶达) 2010.04





“중국 자동차 생산량은 2011년 2천만 대, 2016년 3천만 대를 거쳐 2020년 전후 4천만 대에 달할 것”

- 중국자동차산업 컨설팅그룹 수석연구원 자신광(賈新光) 2010.0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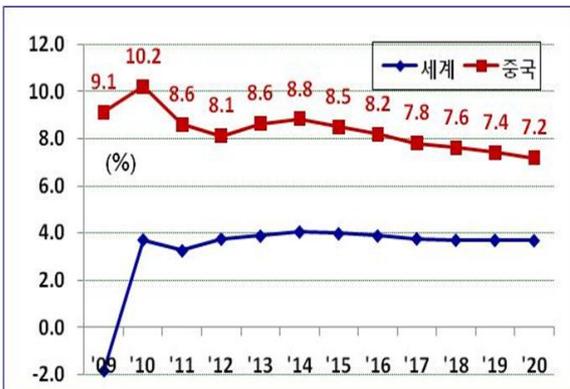
자료: 신문기사 종합

2. 중국 자동차산업의 선순환 체계

□ 중국 자동차산업은 ‘경제 성장→정부의 육성 정책→자동차사의 역량 강화’로 이어지는 성장의 선순환 체계 확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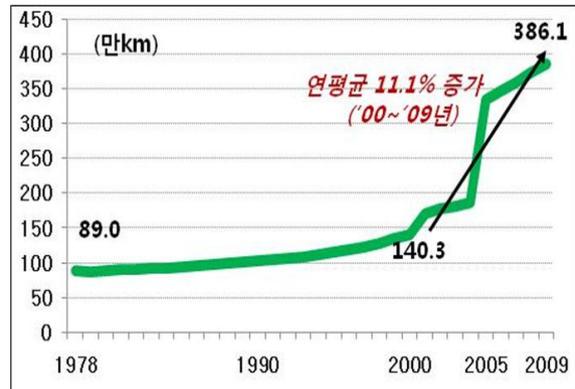
- 2020년까지 연평균 7% 이상 경제 성장을 하면서 자동차 수요 증가를 이끌 전망이며, 도로증가율 역시 자동차산업이 본격 성장한 2000년 이후 연평균 11%씩 증가하였고 정부의 내수확대 정책에 힘입어 계속 증가할 전망

<중국 경제성장률 전망>



자료: Global Insight(2010.9)

<중국 도로증가율 추이>



자료: 중국통계연감(2010)

- 중국 정부의 자동차산업 육성 정책은 기존의 양적 성장 중심에서 양적·질적 성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
 - 정부는 1994년 <자동차산업 발전정책>, 2001년 <자동차산업 10.5 계획>, 2004년 <자동차산업 발전정책>, 2009년 <자동차산업 진흥 계획> 등 정책 지원을 유지할 계획
 - 향후, <新자동차산업 발전정책(발표 예정)>, <新에너지차 발전계획(의견 수렴 중)>, <新에너지차 구입보조금 지급세칙(비준 대기 중)> 등이 시행될 예정
 - 자동차 생산 정책: 목표를 기존의 대형화, 통합화, 승용차 중심 정책 → 세계적 규모의 자동차사 육성으로 설정하고, 향후 수년 내 300만 대 이상 2~3사, 150만 대 이상 4~5사 육성 계획 수립
 - 新에너지차 부문 정책: 향후 10년 내에 글로벌 톱 수준으로 도약하

- 기 위해 향후 5년 내 전기차 연구개발에 100억 위안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연 1,500만 대 생산능력을 구축할 계획
- 시장 정책: 내수 중심 → 내수 및 수출의 동시 강화로 전환
 - 기술 정책: 인진라이(引進來, FDI) 및 독자 브랜드 육성 → 저우추취(走出去, M&A) 및 독자 브랜드 강화로 전환
 - 연관산업 관련 정책: 철강 등 기초산업, 전자산업 및 부품산업 육성 → 기존 연관산업 지속 육성 + 금융, A/S, 중고차 등 서비스업 강화로 전환
- 중국 자동차사들은 4大 4小¹ 기업을 중심으로 외자계 자동차사와의 합작을 통해 단기간에 경쟁력을 확보하였고,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저평가된 해외 자동차사들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도함으로써 기술력을 확보하고 인지도를 강화하는 중
- 지리자동차는 Volvo, 상하이자동차는 MG Rover 인수를 완료했고, 특히 상하이자동차는 GM과 인도에 합작으로 진출하고 최근 GM의 지분 인수를 추진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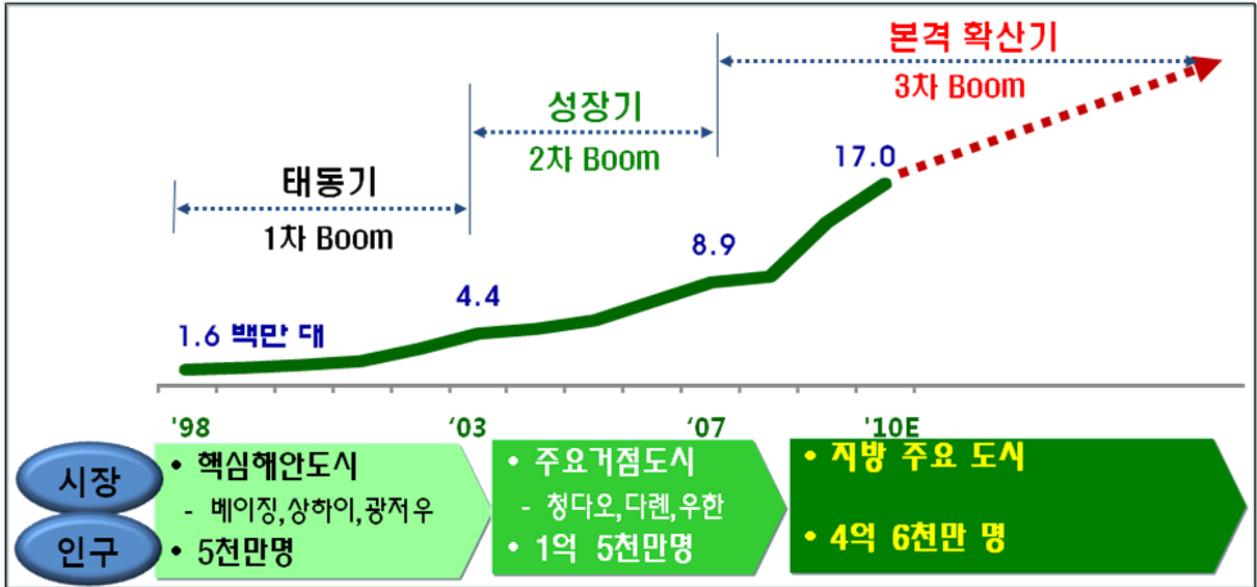
3. 중국의 Motorization 분석 및 전망

□ 중국 자동차시장은 본격적인 Motorization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

- 자동차 판매는 1998년에 태동기와 성장기를 거쳐, 2007년에 본격 확산기에 진입하였으며, 본격 확산기에 진입한 지 4년 만에 약 2배 증가
- Motorization은 동부 해안지역에서 중서부 및 동북지역으로 확산 중이며, 대상 인구도 6억 6천만 명 수준으로 확대

¹ 4大(상하이, 동펑, 치이, 창안), 4小(베이징, 광저우, 치루이, 중싱)

<중국 Motorization 단계>



자료: 포스코경영연구소 (2010)

□ 내수 판매 전망: 2020년 3,600만~4,500만 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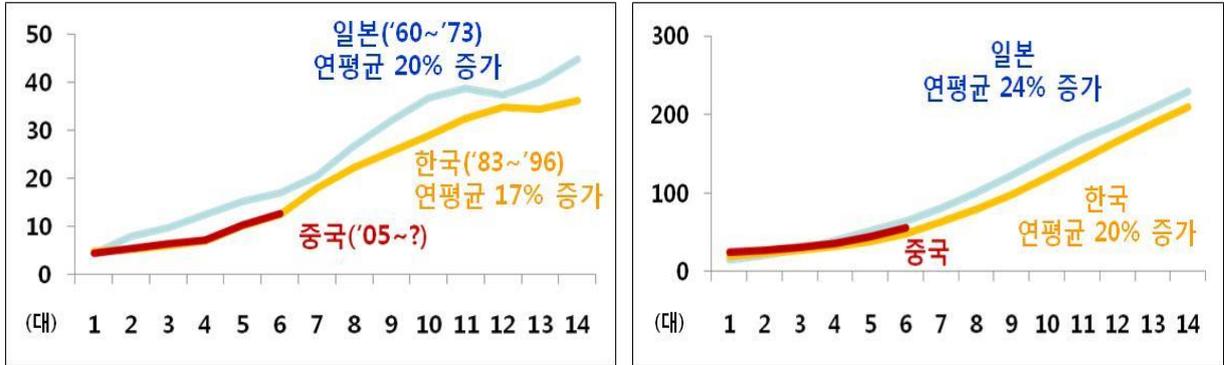
- 중국의 Motorization은 일본, 한국과 20년 시차를 두고 진행 중
 - 2005년부터 현재까지 추세는 일본 및 한국의 과거 성장패턴과 유사
- 동일 기간 중 ‘천 명당 보유대수’도 한국 및 일본의 과거 성장패턴과 유사
 - 2009년 기준 중국 24대, 한국 268대, 미국 435대, 일본 452대

<중국 Motorization 추정>

	시기	진입기 소형차 가격 /인당 명목 GDP	인당 GDP(명목) 증가율(%)	인구 증가율	천명당 판매대수 증가율
일본	'60~'73	2.72 ('62년)	17.5	1.2%	19.7%
한국	'83~'96	2.34 ('83년)	14.7	1%	16.9%
중국	'05~'20	2.36 ('06년)	15.3	0.5%	12~14%

자료: 포스코경영연구소(201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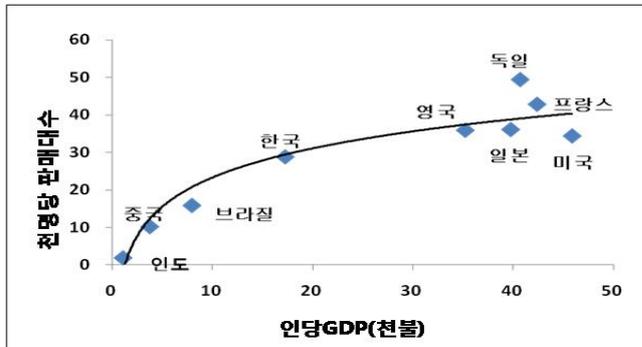
<천 명당 판매대수 및 천 명당 보유대수 변동 추이>



자료: 포스코경영연구소(2010)

- 천 명당 판매대수는 1인당 GDP(명목) 증가율과 유사한데, 중국의 1인당 GDP 증가율에 기초하여 추정한 결과 2020년 판매대수는 3,600만~4,500만 대로 예상
- 중국 1인당 GDP 전망: (2009년) 3,700달러 → (2020년) 1,600달러

<천명당판매대수/1인당GDP 국가별 비교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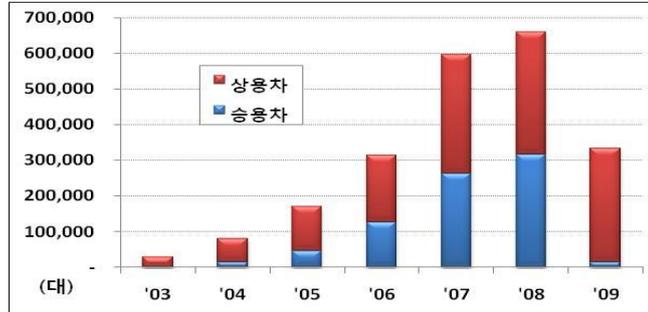
주: 2009년 수요 기준
 자료: 포스코경영연구소 (2010)

	보수적	중립적	낙관적
'인당GDP' 증가율	11%	14%	17%
'20년 인당GDP(\$)	11,987	16,123	21,453
천명당 판매대수	25.4	28.7	31.9
판매 추정치(만대)	3,598	4,069	4,522

□ 중국 자동차 수출 전망: 2020년 152만~300만 대

- 2020년 수출대수는 152만~300만 대로 전망(업체별 수출 목표와 주요 수출시장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반영하여 추정)
- 트럭 및 버스 중심, 아프리카/중동 및 중남미 위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, 선진국으로의 확산은 부정적

<중국 자동차 수출 실적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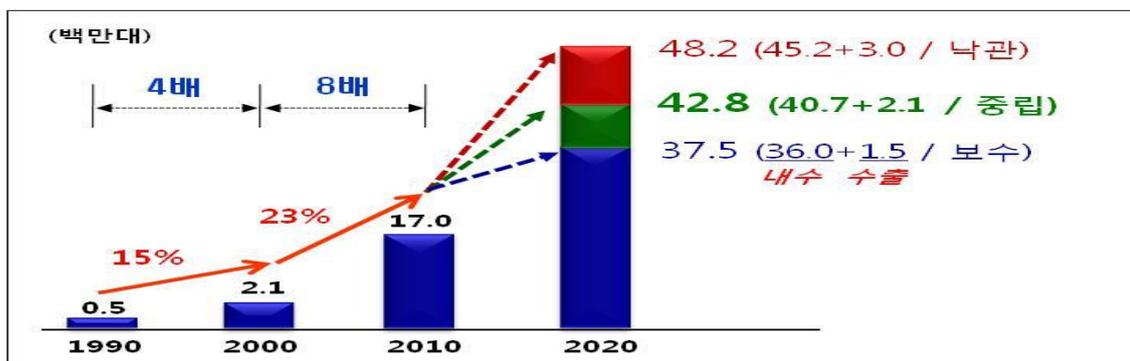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자동차공업협회(2010)

□ 중국의 자동차 생산 전망: 2020년 4,280만 대

- 2010년 1,700만 대에서 앞으로 10년간 2.5배 증가하여 2020년 4천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(1990년 50만 대에서 10년간 4배 증가, 2000년 이후 10년간 8배 증가)
- 내수 생산은 4,070만 대, 수출 생산은 210만 대로 예상되며, 자동차 수출은 2009년 33만 대에 불과하나 향후 아프리카/중동 및 중남미 위주로 연평균 20%씩 증가할 전망

<중국 자동차 생산 전망>



주: 전체 자동차 기준
자료: 포스코경영연구소 (2010)

- 자동차 생산능력은 향후 5년간 1천만 대 이상 증가하여 2010년 2,200만 대에서 2015년 3,300만 대까지 증가할 전망

4. 시사점

- 국내 완성차업계는 중국 자동차시장의 성장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안 조기 마련 필요
 - 글로벌 자동차사들의 현지 확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지 생산능력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규모와 시점에 대해서도 세부 검토
 - 로컬 자동차사들의 기술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
- 자동차 부품업계는 품질 및 기술우위를 활용하여 중국 시장에 대한 공급 확대 방안 구체화 필요
 - 품질 및 기술우위를 계속 강화하고, 이를 바탕으로 한 중국 시장 진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
 - 현지 완성차사 및 부품사와의 합작 진출 등도 적극 고려
- 소재업계는 중국 진출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방안 검토 필요
 - 기술우위를 활용한 중국 현지 업체와의 제휴 가능성을 검토하고, 국내 자동차사 및 부품사와의 동반 진출 추진

김경찬 (e-mail: andrewkkim@posri.re.kr)

정철호 (e-mail: chchung@posri.re.kr)

조대현 (e-mail: chodh@posri.re.kr)

최부식 (e-mail: busikc@posri.re.kr)

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, 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 둡니다.